

농촌 성인남녀의 결혼에 대한 의식 분석

윤순덕 · 박은식 · 김은자 · 조영숙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A Study on Rural Adults' Awareness of Marriage

Soon Duck Yoon · Eun Shik Park · Eun Ja Kim · Young Sook Cho

Researcher, Rural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RDA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rural adults' awareness of marriag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69 adults 20 aged and over living in the rural and analysed by marital status and sex, using SPSS/win program.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 the mate selection, rural adults valued personality(41.9%) above everything else without difference in sex or marital status.

However, while most of unmarried women preferred white collar worker, educated in the college and over, and 1~4 older than them, most of married and unmarried men preferred housewives, educated in the high school, and 3~4 younger than them.

Also, women wanted to live in the urban after the marriage.

2) In connection with wedding ceremony, most of rural adults preferred modern wedding ceremony, appropriately within their circumstance, and general ceremony hall except the unmarried women.

3) Only 45.9% of unmarried women agreed to marriage compared to 74.5% of unmarried men. The unmarried, especially unmarried women, liked more than the married to love marriage.

4) Rural women have more modern attitude toward the marriage than rural men.

Key Words: Marriage Awareness, View of Marriage, Rural Adults

I. 서론

결혼은 당사자 개인이나 집안에만 국한되는 매우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결혼은 건강한 가족 형성의 출발이면서 사회구성원을 생산하고 사회화시켜 사회를 존속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개인이나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오

늘날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개인주의적 사상이 팽배해지고 서구의 가치관이 공존하게 됨에 따라, 결혼의 의미가 달라지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결혼은 가족중심의 소농체제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상,

개인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농업의 지속 및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부양·보호·교육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생활단위로서의 가족농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족내 부부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협조가 이루어져야(권태환·장경섭, 1995)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이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농촌총각들은 신랑감에서 아예 배제되어 자연스럽게 교제를 통해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농촌총각이 장가를 들려면 말과 생김새가 다른 외국여성과의 결혼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된 최근에는 농촌총각의 결혼이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제적 비용과 결혼 후 여러 가지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결혼알선회사를 통해 재중동포,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여성들과의 국제결혼으로 대안을 찾는 농촌총각들이 많아졌다.

이렇듯 농촌총각의 결혼을 어렵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결혼연령층의 성비불균형과 같은 인구학적인 문제, 농촌과 농업의 여건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농촌총각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 등의 개인적인 문제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결혼연령층의 성비 불균형 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는 가부장적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출산성비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농촌사회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여성과 특정연령층의 집중적 이농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농촌/도시 인구의 성비를 보면, 20~24세 연령층의 경우 농촌은 여자 100명당 남자가 144.2명, 도시는 105.8명으로 농촌지역 젊은 여성의 부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농촌 여성들이 취업 또는 학업을 이유로 남성보다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 준다.

둘째,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농촌의 문화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농업에 대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진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귀농인들의 경우 농촌생활의 어려움으로 자녀교육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며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 농촌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기에는 농촌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또한 WTO체제에 들어가면서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되는 등 농업의 국내외적 여건이 어려워지고, 정보산업 등 다른 유망산업들에 밀려 농업은 뒤쳐지고 발전이 더더졌다. 이로 인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육체노동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 힘든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촌에 시집오겠다는 여성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셋째, 결혼은 외적인 상황 못지않게 당사자간에 끌리는 매력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총각들은 외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이성간의 교제경험도 부족해 인간관계 기술이 서툴 뿐만 아니라 여성과 가정에 대한 태도도 보수적이어서 현대 여성들에게 호감을 주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성인남녀는 결혼과 배우자선택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며 결혼식 절차나 결혼전후 생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농촌총각의 결혼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농촌지역의 미혼, 기혼을 모두 포함한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결혼상태와 성별로 총 4개 집단(미혼남성, 미혼여성, 기혼남성, 기혼여성)으로 구분하여 4개 집단별로 결혼에 대한 의식을 비교·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농촌총각의 결혼난(結婚

難)을 예측·진단하며 미래 농촌가정의 원만한 형성과 농촌지역의 건전하고 안정된 결혼생활

영위를 돕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관련문헌 고찰

1. 농촌 성인남녀의 결혼현황

실제로 지난 30년간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2000년 농촌남성들의 평균초혼 연령인 29.0세를 넘긴 30~34세 연령층의 농촌 남성들 중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1966년 97.6%, 1975년 93.2%, 1985년 87.6%, 1995년 72.4%, 2000년 70.9%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0). 35~39세 연령층에서 배우자가 있는 비율도 1966년 97.5%, 1975년 97.3%,

1985년 94.3%로 큰 폭의 변화가 없다가 2000년 87.1%로 낮아져 최근 더 넓은 연령층의 농촌 총각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 현재 도시와 농촌의 연령대별 미혼자 비율을 살펴보아도(〈표 1〉 참조), 여성의 경우는 농촌여성이 도시여성에 비해 미혼자비율이 낮았지만, 남성의 경우는 25~29세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농촌남성이 도시남성에 비해 미혼자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적령기의 도시 미혼남성들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미혼인 경우가 많은 반면, 농촌의 미혼 남성들은 결혼상대를 구할 수 없는 비자발적 미혼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1〉 도시·농촌의 연령대별 미혼자 비율(통계청, 2000)

단위: %

구 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도시(%)	71.57	41.90	27.79	11.45	10.08	4.45	4.45	2.66	2.11	1.80
농촌(%)	68.45	29.53	29.34	7.09	12.98	3.36	6.89	2.26	3.63	1.49

또한 2001년 기준, 올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이 결혼한 건수가 총 10,006건으로 2000년 7,304건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이중 70%가 중국여성이고, 다음으로는 필리핀, 일본 순

이며, 이외에 미국, 베트남,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등이 차지하고 있다.

〈표 2〉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추이(통계청, 2002)

단위: 명(%)

년 도	전 체	중 국	일 본	미 국	기 타
2001	10,006(100.0)	7,001(70.0)	976(9.8)	265(2.6)	1,764(17.6)
2000	7,304(100.0)	3,586(49.1)	1,131(15.5)	235(3.2)	2,352(32.2)

2. 결혼에 대한 의식 연구현황

농촌 미혼남성의 결혼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결혼관이나 결혼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국내에서의 결혼, 배우자 선택에 대한 연구는 결혼관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전통적 결혼관이 어느 정도나 근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되어 왔다(대한가정학회 편, 1990). 이들 연구들이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임진, 1991; 서현주, 1991; 서창원, 1992; 김정옥·김형섭, 1994; 송명숙, 1996; 신복기 등, 1997; 신철균, 1997; 김인숙 등, 1997; 김영희, 1998; 한경순, 1999)가 서울, 광주, 대전 등 특정한 도시지역에 국한하여 주로 20대, 미혼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의식 실태를 파악할만한 실증적 기초자료조차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을 조사하고 있는 소수 연구들(강경하, 1988; 박은식 등, 1987)조차도 농촌총각의 가장 가능성 있는 배우자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여성이라고 가정하고 농촌 미혼여성만을 조사하여 농촌지역 인문/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미혼여성, 농촌인근 공단근로 취업여성과 농촌거주 미혼여성들간의 의식 차이만을 비교하고 있을 뿐, 실제로 결혼상대가 되는 미혼남녀간의 차이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농촌이 도시보다 더 보수적인 가치를 지향함(통계청, 2000)은 가치관이나 태도에 관한 많은 경험적 연구 결과들에서도 밝혀진 바지만, 결혼하여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기혼부부의 결혼에 대한 체면 의식 양상은 어떠하며 이들과 결혼기를 앞둔 미혼남녀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거의 없다.

Ⅲ. 연구방법

1. 결혼에 대한 의식(意識)의 개념 정의

일반적으로 ‘결혼관(結婚觀)’, 결혼에 대한 ‘가치’ 또는 ‘태도’, ‘의식(意識)’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결혼관은 가족가치관의 일부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연구들의 대부분이 객관적인 척도 구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결혼에 대한 의식(意識)’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결혼과 관련한 모든 행동방향에 대한 개인의 일반적인 견해로 정의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00년 9월 경기도 화성 주부 10명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 설문지 수정작업을 거쳤다. 이후 본 조사는 전국 9개 도 88개 시·군(읍면단위) 187개 행정리를 다단 층화집락추출법에 의해 선정, 마을별로 1~187번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한 뒤 마을번호가 홀수인 곳에서는 남자를, 마을번호가 짝수인 곳에서는 여자를 각각 2명씩(기혼1명, 미혼1명) 총 369명(회수율 98.7%)에 대하여 조사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은 우리 연구소 모니터요원에 의한 직접 면접법과 자가기입방법 병행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해 2000. 11. 1~11. 20일(20일간)까지 이루어졌다. 이 중 부적절한 조사대상자 및 결측치가 많은 경우를 제외한 357부만이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즈 SPSS(version 7.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혼상태와 남녀로 구분 총 4개 집단별(미혼남성, 미혼여성, 기혼남성, 기혼여성)로 제시되었다. 농촌 성인남녀의 일반적 특성, 배우자선택, 결혼식절차 및

결혼비용 등에 대한 인식은 빈도, 백분율과 같은 기술통계를 통해 파악하였고 전반적인 결혼관, 결혼전후 생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은 남녀간 비교를 위해 평균, 표준편차, t값을 구하였다.

3. 조사도구

설문지는 결혼에 대한 인식을 크게 4영역, 즉 배우자선택에 관한 질문, 결혼식 절차 및 결혼비용에 관한 질문, 전반적인 결혼관을 묻는 질문, 그리고 결혼전후 생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들을 포함하여 총 48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객관적 척도를 활용한 결혼관과 결혼전후 생활의 변화에 대한 인식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관 측정도구는 전반적인 결혼에 대한 인식은 물론 결혼에 대한 성차별적 태도를 함께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강경하(1988), 김경신·이선미(1998) 등의 척도를 토대로 12문항을 구성하였다. 하위영역은 결혼의 필요성, 결혼의 의의, 이혼, 공합, 혼전순결, 결혼후 여성취업, 여성재혼, 시부모부양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찬성'(1점)에서부터 '매우 반대'(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혼전동거 문항은 recode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결혼관이 전통적이고 높을수록 근대적임을 의미한다.

결혼전후 생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생활수준,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 정신적인 안정 등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조사대상이 미혼이면 결혼했다고 가정하고, 기혼이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생활과 비교하여 귀하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훨씬 나빠졌을 것이다(1점)'에서부터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5

점)'로 측정하고 기혼자는 이를 recode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결혼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총 357명 중 미혼남성은 99명, 미혼여성 85명, 기혼남성 95명, 기혼여성 78명이었다. 집단별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연령별로는 20대 34.5%, 30대 29.8% 순으로 많았으며, 미혼여성은 20대가 대부분(87.1%)이며 미혼남성은 20대 45.5%, 30대 43.4%, 40대도 11.1%나 되었다. 학력은 미혼남녀의 경우 '고졸', '대학이상' 순으로 많은 반면 기혼남녀의 경우 '고졸', '중졸'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특히 미혼남성은 '중졸이하'가 24.5%나 되는 반면, 미혼여성은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38.1%로 미혼남녀간 학력 불균형이 높았다. 직업은 '농림어업직' 40.9%, '전문사무직' 21% 순이었으며, 기혼자는 남녀 모두 '농림어업직' 중 사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미혼남성은 '농림어업직' 32.3%, 미혼여성은 '전문사무직' 49.4%가 가장 많았다.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제수준은 3/4정도가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게 지각하였다. 앞으로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느냐에 대해서는 기혼남성의 80%, 기혼여성 68%, 미혼남성 42.4%, 미혼여성 11.7%가 농촌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미혼여성의 44.7%는 도시에서 거주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 = 3571))

단위: 빈도(%)

변 수	구 분	미혼(n=184)		기혼(n=173)		전 체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연 령	20대	45(45.5)	74(87.1)	4(4.2)	0(0.0)	123(34.5)
	30대	43(43.4)	11(12.9)	24(25.3)	28(36.4)	106(29.8)
	40대	11(11.1)	0(0.0)	40(42.1)	39(50.6)	90(25.3)
	50대이상	0(0.0)	0(0.0)	27(28.4)	10(13.0)	37(10.4)
학 령	초졸이하	9(9.1)	1(1.2)	14(15.1)	16(20.5)	40(11.3)
	중 졸	15(15.2)	1(1.2)	36(38.7)	19(24.4)	71(20.1)
	고 졸	48(48.5)	50(59.5)	33(35.5)	40(51.3)	171(48.3)
	대학이상	27(27.3)	32(38.1)	10(10.8)	3(3.8)	72(20.3)
직 업	농림어업	32(32.3)	2(2.4)	67(70.5)	45(57.7)	146(40.9)
	전문사무직	17(17.2)	42(49.4)	12(12.6)	4(5.1)	75(21.0)
	판매서비스직	17(17.2)	14(16.5)	6(6.3)	6(7.7)	43(12.0)
	생산노무직	18(18.2)	0(0.0)	7(7.4)	1(1.3)	26(7.3)
	주부, 학생 등	15(15.2)	27(31.8)	3(3.2)	22(28.2)	67(18.8)
주관적 경제수준	상	2(2.0)	1(1.2)	5(5.3)	7(9.0)	15(4.2)
	중	70(70.7)	73(85.9)	65(68.4)	62(79.5)	270(75.6)
	하	27(27.3)	11(12.9)	25(26.3)	9(11.5)	72(20.2)
농촌계속거주 희망정도	농촌계속거주	42(42.4)	10(11.8)	76(80.0)	53(68.0)	181(50.7)
	도시살다농촌거주	23(23.2)	19(22.3)	4(4.2)	12(15.4)	58(16.2)
	도시에서거주	17(17.2)	38(44.7)	8(8.4)	9(11.5)	72(20.2)
	잘모르겠다	17(17.2)	18(21.2)	7(7.4)	4(5.1)	46(12.9)
계		99(100)	85(100)	95(100)	78(100)	357(100)

1) 결측치로 인해 변수별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2. 배우자 선택에 관한 인식

결혼관에 대한 연구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으로 먼저 배우자 선택조건,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과 학력,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결혼 후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 배우자 결정방법 등 배우자 선택에 관한 제반 의식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배우자 선택조건 1순위로 미·기혼남녀 모두 성격(41.9%)을 꼽았으며, 2순위는 남성의 경우 건강(21.1%)을, 여성의 경우는 경제력(22.5%)을, 3순위는 남녀모두 애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사자의 개인적 속성을 보

다 중시하는 최근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배우자 직업으로 미혼여성은 회사원(37.6%), 자영업(15.3%), 교사(15.3%)를, 미혼남성은 주부(34.7%), 회사원(21.4%)을 선호하였고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 농업인을 선호하는 사례는 전무하였다. 배우자 학력으로 남성은 고졸을, 여성은 대학이상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와의 연령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남녀 모두 3~4살 차이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남자의 경우는 미혼 53.1%, 기혼 63.2%, 여자의 경우는 미혼 41.2%, 기혼 51.9%가 각각 3~4살 연상과 연하를 적당하다고 보았다. 특

히 미혼여성의 경우는 1~2살 연상도 41.2%나 되었다. 배우자 선택방법으로는 전체의 63.9%가 '본인이 선택하고 부모가 동의하는' 형태를, 30.1%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하여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에 의하기보다는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더 좋다고 생각하며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는 부모에 대한 동의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결혼 후 거주지역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67.3%)이 남성(26.7%)보다 도시를 선호하였고, 특히 농촌 미혼여성의 10명 중 7명(69.4%)은 결혼 후 도시생활을 선호하고 단지 2.4%만이 농촌지역을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반

면, 미혼남성의 경우는 '지역 상관없음'이 46.9%로 가장 많고 28.6%는 결혼 후 도시지역에, 24.5%는 농촌에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교제기회의 가능성이 높고 낯고 자라난 환경이 유사하다는 등의 동질적 요인을 감안한다면, 농촌의 미혼여성이 농촌총각의 배우자감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 미혼여성의 10명 중 7명은 결혼 후 도시생활을 선호하고 단지 2.4%만이 농촌지역을 적극적으로 선호하였고, 배우자 직업으로는 회사원, 자영업, 교사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농업인을 선호하는 사례는 전무하였다.

<표 4> 배우자 선택에 관한 의식(N=3571)

단위: 빈도(%)

변 수	구 분	미 혼		기 혼		전 체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배우자 선택조건 (중복응답)	성격·인간성	83(43.9)	63(38.0)	83(46.1)	60(39.0)	289(41.9)
	건 강	39(20.6)	18(10.8)	39(21.7)	23(14.9)	119(17.3)
	애정·사랑	37(19.6)	22(13.3)	26(14.4)	14(9.1)	99(14.4)
	경제력·재산	8(4.2)	40(24.1)	8(4.4)	32(20.8)	88(12.8)
	직 업	4(2.1)	9(5.4)	5(2.8)	11(7.1)	29(4.2)
	가문·가족관계	6(3.2)	4(2.4)	12(6.7)	6(3.9)	28(4.1)
	종 교	6(3.2)	6(3.6)	3(1.7)	5(3.3)	20(2.9)
	외 모	5(2.7)	2(1.2)	2(1.1)	0(0.0)	9(1.3)
	학 별	1(0.5)	2(1.2)	2(1.1)	3(2.0)	8(1.2)
	배우자 선호직업	회사원	21(21.4)	32(37.6)	14(14.9)	10(13.2)
자영업		11(11.2)	13(15.3)	21(22.3)	23(30.3)	68(19.3)
주 부		34(34.7)	-	31(33.0)	-	65(18.4)
교 사		8(8.2)	13(15.3)	7(7.4)	16(21.1)	44(12.5)
교 수		1(1.0)	9(10.6)	0(0.0)	10(13.2)	20(5.7)
농 민		5(5.1)	0(0.0)	10(10.6)	4(5.3)	19(5.4)
의 사		1(1.0)	5(5.9)	3(3.2)	9(11.8)	18(5.1)
판사, 변호사		0(0.0)	1(1.2)	0(0.0)	2(2.6)	3(0.8)
기 타	17(17.3)	12(14.1)	8(8.5)	2(2.6)	39(11.0)	
배우자 선호학력	중졸이하	18(18.6)	0(0.0)	19(20.0)	2(2.6)	39(11.0)
	고 졸	62(63.9)	29(34.5)	65(68.4)	38(49.4)	194(55.0)
	대학이상	17(17.5)	55(65.5)	11(11.6)	37(48.1)	120(34.0)

결혼후 선호 거주지역	도시	28(28.6)	59(69.4)	23(24.7)	50(64.9)	160(45.3)
	농촌	24(24.5)	2(2.4)	25(26.9)	8(10.4)	59(16.7)
	지역상관없음	46(46.9)	24(28.2)	45(48.4)	19(24.7)	134(38.0)
선호하는 배우자와의 연령차	5+연하	7(7.3)	1(1.2)	9(9.5)	0(0.0)	17(4.8)
	3~4연하	51(53.1)	2(2.4)	60(63.2)	10(13.0)	123(34.8)
	1~2연하	29(30.2)	5(5.9)	17(17.9)	4(5.2)	55(15.6)
	동갑	6(6.3)	4(4.7)	1(1.1)	3(3.9)	14(4.0)
	1~2연상	2(2.1)	35(41.2)	4(4.2)	18(23.4)	59(16.7)
	3~4연상	1(1.0)	35(41.2)	2(2.1)	40(51.9)	78(22.1)
	5+연상	0(0.0)	3(3.5)	2(2.1)	2(2.6)	7(2.0)
배우자 결정방법	부모선택 부모결정	0(0.0)	0(0.0)	0 (0.0)	1(1.3)	1(0.3)
	부모선택 본인결정	4(4.1)	2(2.4)	7(7.4)	7(9.1)	20(5.6)
	본인선택 본인결정	38(38.8)	16(18.8)	33(34.7)	20(26.0)	107(30.1)
	본인선택 부모동의	56(57.1)	67(78.8)	55(57.9)	49(63.6)	227(63.9)

1) 결측치로 인해 변수별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3. 결혼식 절차 및 결혼비용에 관한 의식 식 형태와 결혼식장을 살펴보았다(〈표 5〉).

먼저 결혼식 절차로 약혼식, 함, 피로연, 신혼 여행의 필요성 및 결혼식 규모, 선호하는 결혼

〈표 5〉 결혼식 절차에 관한 의식(N=357¹⁾)

단위: 빈도(%)

변수	구분	미혼		기혼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약혼식 필요성	꼭해야함	2(2.0)	4(4.7)	3(3.2)	2(2.6)	11(3.1)
	가능한한	28(28.3)	21(24.7)	28(29.5)	17(21.8)	94(26.3)
	필요없음	69(69.7)	60(70.6)	64(67.4)	59(75.6)	252(70.6)
함 필요성	꼭해야함	8(8.1)	10(11.8)	2(2.1)	0(0.0)	20(5.6)
	가능한한	48(48.5)	36(42.4)	37(38.9)	31(39.7)	152(42.6)
	필요없음	43(43.4)	39(45.9)	56(58.9)	47(60.3)	185(51.8)
피로연 필요성	꼭해야함	10(10.1)	8(9.4)	8(8.4)	6(7.7)	32(9.0)
	가능한한	72(72.7)	55(64.7)	64(67.4)	50(64.1)	241(67.5)
	필요없음	17(17.2)	22(25.9)	23(24.2)	22(28.2)	84(23.5)
신혼여행필요성	꼭해야함	27(27.6)	33(38.8)	12(12.6)	24(31.2)	96(27.0)
	가능한한	45(45.9)	39(45.9)	54(56.8)	31(40.3)	169(47.6)
	필요없음	26(26.5)	13(15.3)	29(30.5)	22(28.6)	90(25.4)
결혼식 규모	상대하게	2(2.0)	7(8.2)	0(0.0)	1(1.3)	10(2.8)
	격식갖춰	6(6.1)	3(3.5)	3(3.2)	3(3.8)	15(4.2)
	형편맞게	73(73.7)	57(67.1)	70(73.7)	51(65.4)	251(70.3)
	검소하게	18(18.2)	18(21.2)	22(23.2)	23(29.5)	81(22.7)

결혼식 형태	전통혼례	12(12.4)	9(10.6)	17(17.9)	7(9.0)	45(12.7)
	현대혼례	71(73.2)	64(75.3)	75(78.9)	62(79.5)	272(76.6)
	종교혼례	14(14.4)	12(14.1)	3(3.2)	9(11.5)	38(10.7)
결혼식장	일반예식장	46(46.9)	33(38.8)	61(64.2)	41(52.6)	181(50.8)
	종교시설	14(14.3)	10(11.8)	2(2.1)	6(7.7)	32(9.0)
	공공회관	11(11.2)	4(4.7)	16(16.8)	13(16.7)	44(12.4)
	야외기타	27(27.6)	38(44.8)	16(16.8)	18(23.1)	99(27.8)

1) 결측치로 인해 변수별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약혼식’과 ‘함’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 각각 70.6%, 51.8%로 가장 많은 반면, ‘피로연’과 ‘신혼여행’은 ‘가능한 한 해(가)야 한다’가 각각 67.5%, 47.6%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 없다’는 의견도 각각 23.5%, 25.4%이어서 농촌성인들은 결혼식 전후의 여러 절차를 가능한 한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치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약혼식, 함, 신혼여행’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미혼여성에게서, ‘피로연’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은 미혼남성에게서 가장

높았다. 결혼식 규모는 ‘형편에 맞추어 해야 한다’가 70.3%, ‘계획을 세워 최대한 검소하게 해야 한다’ 22.7%였으며, 결혼식 형태는 ‘현대혼례’를 선호하는 비율이 7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통혼례(12.7%)’, ‘종교혼례(10.7%)’ 순이었다. 결혼식장은 ‘일반예식장’ 50.8%, ‘야외, 기타’ 27.8%, ‘공공회관’ 12.4% 순이었으며 미혼 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야외나 기타’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6> 적정 결혼비용에 관한 의식(N=357¹⁾)

단위: 빈도(%)

변 수	구 분	미 혼		기 혼		전 체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총결혼비용 (주택마련비용제외)	1천만미만	65(65.7)	28(32.9)	65(68.4)	40(51.3)	198(55.5)
	1~2천미만	29(29.3)	46(54.1)	26(27.4)	32(41.0)	133(37.3)
	2천만이상	5(5.0)	11(12.9)	4(4.2)	6(7.7)	26(7.3)
주택마련비 (만 원)	2천미만	26(26.5)	15(17.6)	28(29.8)	19(24.7)	88(24.9)
	2~3천미만	49(50.0)	31(36.5)	51(54.3)	44(57.1)	175(49.4)
	3~4천미만	11(11.2)	20(23.5)	12(12.8)	9(11.7)	52(14.7)
	4천이상	12(12.3)	19(22.4)	3(3.2)	5(6.5)	39(11.1)
예물비용 (만 원)	3백미만	51(52.0)	39(45.9)	59(62.1)	36(46.2)	185(52.0)
	3~5백미만	40(40.8)	32(37.6)	29(30.5)	34(43.6)	135(37.9)
	5백이상	7(7.1)	14(16.5)	7(7.4)	8(10.3)	36(10.2)
결혼비용 부모의존	전적자립	16(16.3)	12(14.1)	13(13.7)	6(7.7)	47(13.2)
	가능자립	52(53.1)	44(51.8)	29(30.5)	37(47.4)	162(45.5)
	약간의존	29(29.6)	28(32.9)	52(54.7)	35(44.9)	144(40.4)
	전적의존	1(1.0)	1(1.2)	1(1.1)	0 (0.0)	3(8.0)

1) 결측치로 인해 변수별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적정 결혼비용에 관한 농촌 성인남녀의 의식은 <표 5>와 같다. 신랑 또는 신부 한 쪽의 총 결혼비용(주택마련비 제외)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남녀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주로 신랑쪽에서 준비하는 주택마련비를 제외하였기 때문인지 남성보다는 여성이 적정 결혼비용규모를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1천만원 미만'(미혼 65.7%, 기혼 68.4%)이, 여성은 '1~2천만원 미만'(미혼 54.1%, 기혼 41.0%)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주택마련비는 '2~3천만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미혼여성을 제외한 3집단에서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반면, 미혼여성은 '3천만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45.9%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에게 주는 예물비용(한복, 양장, 폐물 등)의 규모는 '3백만원 미만'이 52%, '3~5백만원 미만' 37.9% 순이었다. 결혼비용을 부모님께 의존하는 것에 대하여 '되도록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45.5%)'와 '부모가 약간 도와주는 것도 바람직하다(40.4%)'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4. 결혼 전반에 관한 의식 및 결혼관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전 교제기간, 선호하는 결혼형태, 이상적인 남자결혼연령과 여자결혼연령, 이상적인 자녀수 등 전반적인 결혼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7> 전반적인 결혼에 대한 의식(N=357¹⁾)

단위: 빈도(%), Mean(S.D.)

변 수	구 분	미 혼		기 혼		전 체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결혼에 대한 태도	매우 찬성	27(27.6)	10(11.8)	40(42.1)	17(21.8)	94(26.4)
	찬 성	46(46.9)	29(34.1)	42(44.2)	32(41.0)	149(41.9)
	보 통	17(17.3)	35(41.2)	11(11.6)	26(33.3)	89(25.0)
	반 대	7(7.1)	11(12.9)	2(2.1)	3(3.8)	23(6.5)
	매우 반대	1(1.0)	0(0.0)	0(0.0)	0(0.0)	1(0.3)
결혼전 교제기간(개월)	6미만	19(19.6)	4(4.7)	19(20.0)	8(10.3)	50(14.1)
	6~12미만	49(50.5)	31(36.5)	43(45.3)	37(47.4)	160(45.1)
	12~18미만	10(10.3)	12(14.1)	16(16.8)	19(24.4)	57(16.1)
	18~24미만	8(8.2)	15(17.6)	8(8.4)	6(7.7)	37(10.4)
	24이상	11(11.3)	23(27.1)	9(9.5)	8(10.3)	51(14.4)
선호하는 결혼형태	중매결혼	4(4.1)	0(0.0)	6(6.3)	3(3.8)	13(3.7)
	연애결혼	52(53.1)	62(72.9)	43(45.3)	36(46.2)	193(54.2)
	중매·연애반	42(42.9)	23(27.1)	46(48.4)	39(50.0)	150(42.1)
남자결혼연령(세)		29.3(1.67)	29.1(1.75)	28.4(1.54)	28.6(1.67)	28.87(1.69)
여자결혼연령(세)		26.0(1.74)	26.6(1.57)	25.3(1.34)	26.7(1.35)	25.90(1.59)
이상적자녀수	2명이하	73(75.2)	64(76.2)	55(57.9)	34(59.1)	227(64.1)
	3명	19(19.6)	15(17.8)	28(29.6)	21(24.0)	83(23.5)
	4명이상	5(5.2)	5(6.0)	15(12.5)	23(16.9)	44(12.4)

1) 결측치로 인해 변수별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먼저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보면, 농촌 성인남녀의 68.3%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에 찬성하고 있으며, 기혼남성(86.3%), 미혼남성(74.5%), 기혼여성(62.8%), 미혼여성(45.95) 순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형태로는 미혼여성 72.9%, 미혼남성 53.1%가 ‘연애결혼’을 선호하는 반면, 기혼여성 50%, 기혼남성 48.4%는 ‘중매반·연애반의 결혼’을 선호하여 결혼상태별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몇 살쯤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실제 초혼연령과 비슷한 남자 28.9세, 여자 25.9세라고 응답하였다. 이상적인 자녀수로는 ‘2명 이하’가 64.1%로 가장 많고, ‘4명 이상’도 12.4%나 되었다.

12개 항목의 객관적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농촌 성인남녀의 결혼관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7>과 같다. 먼저 결혼관(1~5점)의 전체 평균점수가 2.87점으로 ‘보통’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집단별로는 미혼여성(3.2점), 기혼여성(2.87), 미혼남성(2.77점), 기혼남성(2.61점) 순

으로 근대적 경향을 보였으며, 세부항목들의 점수는 2.12~3.44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더 근대적인 결혼관을 보였으며, 기혼남녀간($p < .01$) 보다는 미혼남녀간($p < .001$)의 성별 차이가 더 컸으며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있어서도 미혼자와 기혼자간에 유사하게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결혼 전 공합의 필요성, 연하남-연상녀 결혼에 있어서는 다소 근대적인 성향을 띠는 반면, 결혼의 필요성, 혼전순결, 혼전동거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항목 중에서 미혼남녀간에는 결혼의 필요성, 결혼의 의의, 이혼, 결혼 후 여성취업($p < .001$), 여성의 재혼, 아들에 의한 부모부양, 시부모부양($p < .01$) 등 총 7항목에서, 기혼남녀간에는 결혼의 필요성, 결혼 후 여성취업, 아들에 의한 부모부양, 시부모부양($p < .001$), 결혼의 의의, 이혼($p < .01$) 등 6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결혼전후 결혼생활에 있어 배우자간 갈등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객관적 척도에 의한 결혼관

단위: Mean

항 목	미 혼			기 혼			전 체 (1~5점 ¹⁾)
	남 성	여 성	t 값	남 성	여 성	t 값	
결혼의 필요성	2.07	2.55	-3.65***	1.74	2.19	-3.81***	2.12
결혼의 의의	2.77	3.31	-3.77***	2.29	2.67	-2.49*	2.75
이 혼	2.67	3.52	-5.37***	2.69	3.08	-2.15*	2.97
공 합	3.52	3.42	.66	3.50	3.27	1.37	3.44
혼전순결	2.46	2.41	.34	2.03	2.16	-.86	2.27
혼전동거	2.65	2.51	.93	2.30	2.21	.59	2.42
연하남·연상녀결혼	3.37	3.58	-1.68	3.23	3.19	.26	3.34
재혼녀·초혼남결혼	3.23	3.45	-1.73	3.14	3.13	.04	3.24
결혼후 여성취업	2.75	3.52	-5.25***	2.62	3.25	-3.65***	3.01
여성재혼	3.30	3.68	-2.86**	2.96	3.22	-1.50	3.28
아들에 의한 부모부양	2.27	2.63	-2.68**	2.29	3.01	-5.18***	2.52
시부모부양	3.02	3.49	-3.31**	2.67	3.14	-3.05***	3.06
총 계	2.77	3.20	-5.22***	2.61	2.87	-3.53**	2.87

* $p < .05$ ** $p < .01$ *** $p < .001$

5. 결혼 전후 생활의 변화에 대한 인식

결혼상태 및 성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면, <표 9>과 같다.

결혼전후 생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결과가

<표 9> 결혼전후 생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Mean

항 목	미 혼			기 혼			전체 (1~5점 ¹⁾)
	남 성	여 성	t 값	남 성	여 성	t 값	
생활수준	3.76	3.81	- .36	2.91	2.46	2.55*	3.26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	2.79	2.62	1.16	2.67	2.30	2.06*	2.61
정신적인 안정	4.19	3.90	2.13*	2.95	2.55	2.05*	3.43
타인과의 관계	3.55	3.37	1.26	2.80	2.50	1.83	3.08
생활만족도	4.06	3.89	1.43	2.50	2.46	2.53*	3.36
계	3.67	3.52	1.68	2.87	2.45	3.25**	3.16

* p<.05 ** p<.01 *** p<.001

결혼전후 생활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 전체 평균점수가 3.16점으로 결혼에 대하여 '보통' 수준으로 기대를 갖고 있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정신적인 안정'(3.43점)과 '생활만족도'(3.36점)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2.61점)의 변화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집단별로는 전반적으로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미혼남녀간에는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정신적인 안정'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결혼후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기혼남녀간에는 5항목 중 '타인과의 관계'를 제외한 4항목에서 남녀간에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V. 결 론

개인의 올바른 결혼관과 가치관 정립은 배우자 선택에서 뿐 만 아니라 건전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바탕이 되며 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이

조사가 용이한 도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결혼관이 어느 정도 근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만 분석되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 농촌이 겪고 있는 농촌총각의 결혼문제와 농촌가족의 문제를 예측·진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농촌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과 관련된 모든 행동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결혼에 대한 의식'으로 정의하고, 전국 9개 도 88개 행정리(읍면단위) 20세 이상 성인남녀 357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선택, 결혼식 절차 및 비용에 대한 의식, 전반적인 결혼관, 결혼전후 생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여 결혼상태와 성별로 집단을 구분, 4집단별(미혼남성, 미혼여성, 기혼남성, 기혼여성) 결혼에 대한 의식을 비교·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결혼에 대한 의식 실태에만 한정되어 농촌지역의 결혼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촌지역의 결혼에 대한 의식 실태 조사에서

더 나아가 그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여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가 얽혀 농촌총각의 결혼대책은 예전에 있었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나 캠페인,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정보회사에 의한 외국여성의 알선 등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질적인 대책 없이 이들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에만 급급해 한다면, 농촌으로 어렵게 시집온 여성들을 농촌에 계속 붙잡아 놓지 못하고 다시 농촌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엔 농촌총각 결혼문제에다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촌생활과 농업의 여건이 단계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농촌복지정책과 농업정책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총각 개인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예전과 달리 최근의 결혼은 당사자끼리의 좋은 감정과 지속적인 만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므로, 농촌총각의 순수함과 풋풋함에 깔끔한 외모, 사교적인 기술, 적극적인 태도까지 갖춘다면 최고의 배우자감이 될 것이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영농교육을 받는 것처럼, 결혼이후 부부관계나 여타의 가족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도록 결혼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면 농촌에서의 원만한 가정 형성을 돕고 나아가 농촌·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I. 참고문헌

강경하. (1988). **농촌 미혼여성의 결혼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태환, 장경섭. (1995). **한국 가족농 재생산체**

계의 위기: 가족주기별 분포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18(1), 1-39.
김경신, 이선미. (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 **한국가정과학회지**, 1(1), 27-43.
대한가정학회 편, 1990,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III 아동학·가족학, 교문사.
김영희. (1998). 결혼과 가족가치관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충북대학생활연구**, 23, 21-45.
김인숙 등. (1997). 충청지역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조사. **서원대학생활연구**, 15, 19-34.
김정옥, 김형섭. (1994). 강릉대 재학생들의 결혼관과 연애관에 관한 의식조사. **강릉대학생활연구**, 13, 65-99.
박은식 등. (1987). **농촌 미혼남녀의 결혼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서창원. (1992). 충남대학교 재학생들의 결혼관과 연애관에 대한 조사. **충남대 학생생활연구**, 19, 149-168.
서현주. (1991). **미혼 남성의 결혼의식 및 결혼비용 지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명숙. (1996). 남·녀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비교 연구-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남대논문집(인문과학)**, 26, 85-103.
신철균. (1997). 결혼상대의 특징들의 중요성: 중요한 특징들, 요인들 및 관련 변인들. **인덕대논문집**, 19, 189-212.
임진. (1991). **일부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통계청. (200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한경순. (1999). 대학생들의 결혼관 및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조선대 교과교육연구**, 2(1), 255-275.
(2006년 4월 7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